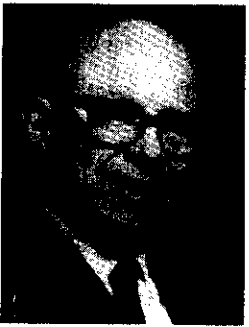


스칼라피노 교수와의 대담

스칼라피노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

이흥영 / 미국 버클리대 교수



Robert A. Scalapino

이흥영: 교수님과의 대담을 먼저 매우 포괄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즉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만 문제나 최근 북경 정부의 헨리 우(Henry Woo) 체포와 같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관계의 악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질문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교역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제반 문제들은 양국 간 관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이라면 경수로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남측 쌀 제공 수락에 의해 시작된 남북한간 직접 대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에 약간의 진전이 있는 듯하며, 일본도 평양과의 협상을 곧 재개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상황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내 세력 구도의 재편성을 예견해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재편성은 처음에는 매우 점진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결국 이 지역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포괄적 문제들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스칼라피노: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목표는 시장 개방의

“그들을 고립시켜
그들을 봉쇄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확대와 보다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확립이며, 이를 위하여 양자간, 다자간 방법 모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지속되어 온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 협상이나,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미국과 중국 및 다른 국가들간의 양자간 협상을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쌍무주의가 다자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이를 통해 APEC, 그리고 더 나아가 WTO라는 세계적 기구의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결국에 가서는 보다 개방된 교역체제와 보다 심화된 상호의존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합의는 지역적이고 범세계적인 것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양자간 조정에서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정치적 개방과 다원주의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목표는 봉쇄(containment)정책보다는 포용(engagement)정책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 사회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지역과 국제사회 내에서 경제적, 문화적, 그 밖에 다른 측면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할 때 그들의 정치적 개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그들 사회의 변화 과정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립시켜 그들을 봉쇄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은 미국내에서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내에는 북한,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들을 봉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와 과거 정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확신해가고 있는 점은 현재 변화 중인 사회들의 참여를 여러 가지 수준과 측면에서 유도하고 또 그들의 경제적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개방이라는 종국적 목표의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에서 그 어떤 국가도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공약은 유지되

특별기획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개방적인 교역체제와 시장체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증진을 추구하되, 그 방법은 봉쇄가 아니라 포용에 의한 것이며, 또한 다자주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어야 합니다. 물론 군사 문제의 성격 변화나 이들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능력의 확충과 같은 변화 요인들에 상응하는 조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대규모의 해외주둔군 유지가 더 이상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주둔군은 올가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이 현재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십만명에 상당하는 군대의 수를 상당량 축소하리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점차적으로 공수력, 이동 방위, 합동 훈련, 그리고 주둔국의 역할 증대에 대한 의존을 중대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큼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관심에 대해서는 동북아에 지역안보구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 무기 (특히 그 중에서도 전략적 무기) 판매와 관련한 투명성과 협력의 문제, 그리고 지역내 제한적 비핵지대의 설정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게 될 동북아 안보협의체가 탄생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동북아 지역에도 이제 이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쌍무적 협상이라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 데에는 먼저 현재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몇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포괄적인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개방적인 교역체제와 시장체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증진을 추구하되, 그 방법은 봉쇄가 아니라 포용에 의한 것이며, 또한 다자주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영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내지 소지역내 모든 국가들을 포괄함과 동시에 새로운 군사 기술 발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지역 전략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홍영: 교수님께서서는 교역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일본 및 한국에 대한 쌍무주의적 접근법이 다자적, 범세계적 교역 레짐의 형성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국제경쟁력 감퇴를 고려할 때, 결코 미국이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쌍무적 압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세계적 자유 교역체제의 형성에 해가 되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 미국내 일부 세력들로부터의 거센 정치적 압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칼라피노: 우리는 지금 민족주의가 전세계 거의 모든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족주의는 다른 국가에 의해 미국 경제에 가해진 부당행위의 수정을 고집하는 형태를 띠곤 합니다. 이는 폐쇄된 시장의 유지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유지 등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난입니다만, 동시에 여러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쌍무적 협상에 있어서 보다 완강하고 고압적인 접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결국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추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해외에서의 반미 감정을 초래할 것이며,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최근의 미국-일본간에 이루어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합의를 살펴보면, 일본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하거나 또한 자신의 자동차산업을 관리 무역형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부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합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 정부가 당초부터 원하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책의 불행은 일방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자체가 WTO 규정의 위반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력한 범세계적 무역기구의 탄생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할 수 있

특별기획

“실제로 과거 쉽게
예측되지 못했던 일본
경제의 몇 가지
약점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회는 21세기에
접어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노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보장
구조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외교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국내정치와 외부적 요인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개방된 사회가 지불해야만 하는 한 가지 대가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서로 다른 경제적 문화들이 조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일본이 비록 매우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국내적 압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과거 엔화의 급등과 국내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국제화를 달성해 내야만 했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일본내의 무드는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의 경제 체제 혹은 경제 전략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초반에 가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일본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쉽게 예측되지 못했던 일본 경제의 몇 가지 약점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회는 21세기에 접어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노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보장 구조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막대한 외화보유고가 줄게 될 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일본과의 경쟁은 미국 산업 구조의 몇몇 취약 분야로 하여금 전보다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가장 적절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상당한 품질 향상을 이루어 냈으며, 그 결과 국내외 모두에서 경쟁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요약한다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서로 다른 발전 단계, 그리고 서로 다른 경제전략의 추구 등과 같은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차이점들은 금방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협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 다자간 차원에서 대화

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쌍부주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차원에서 영구적 협상 체제를 유지하되,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서로 양립할 수 있고 연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미국-일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간의 쌍무관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흥영: 그렇다면, 미국-중국 관계에도 똑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칼라피노: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구체적인 문제들은 다르겠지만, 중국 또한 개발도상국가로서 미국의 이익과 경제 체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가장 최근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 혹은 비관세 형태의 보호주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 또한 미국과 중국간에 점차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흥영: 그러면 이제 국가 안보 문제로 대화의 초점을 바꾸어, 미국의 주요 전략 목표가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 등장의 방지라는 가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경제적 초강대국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력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중국이 새로 창출된 경제적 부를 군사적 힘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제적 경제력, 그리고 중국의 잠재적 경제력을 고려할 때, 패권국가 등장의 방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스칼라피노: 먼저, 이 지역의 주요 강대국이 직면하고 있는 있는 현

“이념의 쇠퇴로 인해 정치적 지지 호소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발견해 내는 일이 필요해 진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와 미래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대략적인 전체적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민족주의는 크고 작은 모든 아시아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 주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중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민족주의가 점차 쇠퇴해 가는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념의 쇠퇴로 인해 정치적 지지 호소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발견해 내는 일이 필요해 진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향후 10년간에 직면하게 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자신들의 ‘잃어버린 제국’(lost empire)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포함됩니다. 제 말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한때 소련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엄연한 독립국가로 발전한 국가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새로 형성된 중앙 아시아 공화국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한때 그들 서쪽 국경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으나 이제는 독립한 국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중국의 경우, 대만과 남지나해 군도는 물론이고 한때 중국 제국의 일부라고 여겼던 북쪽 지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연 중국은 몽고 공화국의 독립을 영구히 받아들일 준비가 실제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베리아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방에 대한 중국의 미련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일본의 경우,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대동아공영권을 창조해 냈습니다. 바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이루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책에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요소들이 보충될 것인가?

미국의 경우, 중대한 현안 중의 하나는 어떻게 과거 냉전시대를 특징 지웠던 후원자-추종자(patron-client) 관계의 쇠퇴와 그에 따른 동맹국 측의 동등한 협력관계 및 의사결정 권한 확대 요구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안보
공약에 관한 한 과거의
일방주의로부터
다자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가 제가 ‘잃어버린 제국’이라 이름 붙인 문제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요 강대국들간의 관계는 물론이려니와 이 지역내 약소국가 및 중견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안보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한가지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이나, 고정된 세력 균형의 창조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안보 공약에 관한 한 과거의 일방주의로부터 다자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단일의 동맹에 의존하기보다는 문제의 정확한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다자적 연합체의 설립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예로 든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의미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한반도 문제에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 강대국으로 구성된 보다 커다란 아크가 있습니다. 지난 3~4년간 그들의 행위(혹은 비행위)는 한반도 상황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는 국제기구라는 다른 아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잠재적으로 중요한 국제기구에는 국제연합(UN)과 그 부속기구는 물론이고 IMF, 세계은행, 그리고 이와 비슷한 종류의 다른 기구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구성은 그 문제에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문제의 경우, 한반도와는 매우 다른 아크와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면, 현재로서는 모든 위기나 문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고정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UN에 대한 실망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강대국간의 관계가 주어진 현안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힘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간의 동맹 가능성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국가간 연합이나 제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장래에 고전적 의미의 영구적 세력균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탄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혹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러시아-일본 관제의 지속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주어진 사안에 따라 국가들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중국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국-일본간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미국-일본간의 협력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북방영토 문제를 비롯한 많은 지역적, 혹은 국제적 문제에서 발휘되었습니다만, 모든 문제는 아닙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견해 차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요약하면,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국가간 연합이나 제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장래에 고전적 의미의 영구적 세력균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탄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에서의 우려가 증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ASEAN 국가들과 인도차이나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 근대화 노력의 결과,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도 가지게 될 21세기의 강대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남지나해 군도나 대만 문제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는 강대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로서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봉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 국가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지역내 미군 주둔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10년전 상황과 비교한다면, 10년전에는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가 일본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를 표시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압도적인 것으로 이들 국가 모두에게 국내적 영향까지 미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가지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막강한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독립적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력이 군

“저는 러시아가 21세기 초반에 다시 주요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력이 합쳐져, 결국 일본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일본의 대한 우려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중국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일본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가장 막강한 아시아내 경쟁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러시아는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생각되었던 것에 비해 러시아의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 무대에서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본다면, 21세기 초반에 가면 러시아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기술 엘리트층을 소유하고 있으며, 게다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매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21세기 초반에 다시 주요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한 러시아는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은 주요 강대국이 되면 자신의 주변 지역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21세기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러한 발전에 있습니다. 모든 주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내적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강대국들의 외교 정책에서 모험주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안보전략적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institutions)를 강화할 시기입니다. 저는 향후 5~10년 이내에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홍영: 민족주의가 동아시아에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아시아가 유럽공동체와 다른 점은 경제적 성공을 거

든 각 국가가 민족적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현안들을 민족내부화하려는 이러한 민족주의 경향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화와 국제화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같은 질문이 미국에도 던져 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를 보장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군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다자주의 접근법을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와 고려들을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추세는 민족국가의 안정과 운영가능한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인 제도와의 조합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스칼라피노: 오늘날 우리는 민족국가가 당면하게 되는 굉장한 역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분열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공동체생활에 대한 매력의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내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주의가 유행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합적 요인의 강화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지역적, 혹은 범세계적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민족국가는 아래, 위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적 대응으로서, 민족주의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인식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추세는 민족국가의 안정과 운영가능한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인 제도와의 조합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정치체제의 성격을 막론하고, 그 어떤 국가도 현대에서 고립과 지역내 활동에의 불참을 통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과 미얀마(과거 버마)까지도 고립주의를 벗어나 자신들이 속한 지역과 세계와의 접촉을 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민족주의가 고립주의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회에도 내부 혹은 내부적 구조에 대한 강조를 요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지배적 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시아는 민족주의적 형태를 띠는 특정한 해악에 빠질 우려가 큼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주의가 현재 아시아에서 대단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일본간 관계에 대한 하나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내 중국계 주민들과 말레이 주민들간의 불화에서도 발견되며, 또한 인도와 중국,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강대국간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적 감정이나 편견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두개의 문화간 그리고 다수 문화간으로 대화의 차원을 넓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이미 수많은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간의 교류와 차용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종류의 민족주의는 계속해서 합리적 정책 대응에 방해가 될 것이며, 이는 아시아 지역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홍영: 사실 저는 한국에서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경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세계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의 충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공식 구호(catch-phrase)가 ‘세계화’라는 점이며, 이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도 이제 광범위한 지역적 문제에서 북한이라는 구체적 문제로 옮겨왔습니다. 경수로 문제에 관한 북미간 팔라뎀푸르 합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그 합의가 북한의 핵 의혹을 불식시킬 뿐 아니라 향후 북미간 관계 정상화의 기초가 될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스칼라피노: 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합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며, 또한 많은 도전들이 아직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아서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그 밖에 아시아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현재의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붕괴된 북한을 원치 않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갖춘 북한을 원치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력은 경제 교류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이 지역내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첫 걸음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주변국가들간에 가장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만,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한을 모두 함께 끌어들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 꼭 부언해 두어야 할 점은 우리가 현재 들어선 이 길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물론 통계자료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하며, 특히 북한이 일본과 남한에 쌀 원조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에서 북한 경제문제의 심각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북한 지도부가 최근 일부 남한 기업들의 북한내 경제활동 추진을 허용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나진-선봉과 청진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평양 근처에 있는 남포의 개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현재의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아직도 남한 정부에 대해 매우 심한 언어적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문구를 보면, 김영삼 정부에 대한 비난은 최대한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지나칠 정도로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전은 북한의 사회개혁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영향과 압력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격리시켜 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시대에서 가장 고립되었던 사회가 이제 막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길을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있는 것

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최소한으로 머물렀던 시대(즉, 심지어 중국인들조차 북한 내부의 조건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이제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또한 매우 어려운 협상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홍영: 일부 남한의 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이번 북미 합의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합의는 단지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거나, 또는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북미 관계의 발전에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현재 진행중인 북미 대화에 그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북한에 대해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정상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의
정립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인정과 남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칼라피노: 먼저, 미국과 남한 정부와의 동맹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당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미국내 매우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명분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남한 국민들과 정부가 한미간 안보합의의 유지를 원한다면 (이는 올가미 목적으로서의 소수 미군의 주둔을 포함함), 이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의 대북 화해 제스처가 한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북미관계의 성격과 발전 시기 등에 대해 한미간에 불가피하게 이견이 발생했던 미묘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해 차이는 한미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내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내에서 새로운 민족주의 감정의 상승으로 반미감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음도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들 중 어떤 요인도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고는 생각하

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정상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의 성립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인정과 남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픈 점은 어느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또한 의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이 무엇이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협상에 있어서 미국은 남한의 참여를 끝까지 고집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남한이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한미관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분단 조국의 궁극적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통일은 평화적으로, 즉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체제가 점진적으로 변해 가는 일종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입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흥영: 북한으로서 남한이 자신의 사회에 미치게 될 잠재적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피하려고 해 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협상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남북한간 통신 및 다른 접촉교환의 확대가 북한의 국내외 정책에 매우 불행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은 북한에게 남한과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확대하라고 고집해야만 했습니다.

스칼라피노: 저도 동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북한이 과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집했던 정도의 남한의 관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비록 이러한 남한의 개입을 감추어 보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봅니다. 남한의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에 건설될 것이며, 또한 남한의 쌀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한 기업들은 나진-선봉 지대뿐만 아니라 평양과 훨씬 더 인접해 있는 남포 공단에도 투자하도록 요청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내 남한의 가시성 문제가 계속해서 현안으로 남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이해가 됩니다. 경제 통계가 대충이라도 정확하다면, 남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에 비해 8~9배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격차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북한 정부라 할지라도 남한의 개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남한을 비롯한 그 외 다른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해 매우 중대한 모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변화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의 상태를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북한의 붕괴를 의미할 뿐입니다.

남한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일에서와 같은 갑작스런 붕괴가 북한에서 발생하여 북한의 2천 2백만 주민을 흡수해야 한다면, 남한으로서도 막대한 어려움에 빠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비용은 경제적이기도 하거니와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남한의 정치제도 구조는 아직 연약한 상태입니다. 비교적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지요. 경제적, 정치적 개방의 경험이 전무한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적, 정치적 체제에서 살아 온 주민들을 흡수한다는 것은 겁날 정도의 비용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즉 북한의 소위 안착(soft-landing)을 위해서는, 남한 측으로서는 고도의 지혜와 인내심, 그리고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영: 교수님의 견해로는 남한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민감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구체적

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하실 것이 없으신지요? 남한 정부로서는, 자신의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남북한의 인적 접촉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이념적 영향력에 대한 북한 정권의 극도의 취약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스칼라피노: 외국인인 저로서는 남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남한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첫째로, 북한측의 언어적 공격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냥 무시해야 할 것인가?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측에 지나친 자율권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정치과정과도 깊게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매우 미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남한 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매우 조심스럽고 인내하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안보와 장기적 목표를 위협할 정도의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남한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리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영: 남한이 처한 딜레마의 하나는 비록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수 세력을 포함한 그 누구도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이 갖는 민족적, 역사적 의의를 고려할 때 통일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누구도 감히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한 국민들과 정부의 이러한 딜레마를 서구인들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남북한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고위급 회담이 남북한간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스칼라피노: 김정일이 현재 공식으로 있는 두 가지 최고위직 중에서

한 개 혹은 둘 모두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정상회담의 논의는 분명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이러한 공식 권력 승계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정상회담이 상징적으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정부의 기초 작업을 통해 양쪽 정상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승인할 수 있는 일련의 합의가 미리 마련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진정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작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1991년 12월에 합의된 남북 공동위원회를 재개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재개되어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그 때는 적절한 시기에 양국 정상간의 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초 단계에 있으며, 미래의 전개 방향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의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데에 회의적입니다.

이홍영: 교수님께서서는 최근 북경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 국민들의 계속되는 관심사 중의 하나는 김정일 체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가 언제 김일성의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등극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이 있으신지요?

스칼라피노: 제 생각에는 중국인들도 솔직히 평양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록에 의하면 최근 북한과 중국간에 이루어진 인적 방문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중국이 특히 경제 측면에서 남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데에 대해 북한은 무척 불쾌

해 하는 듯합니다.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측은 모두 언제 김정일이 당총서기직과 주석직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인들도 근거 있는 정보나 사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믿을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중국 혹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대부분 향후 몇 달 안에, 아마도 가을 경에 권력 승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이 특히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가, 또 그 밑에 권력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자료가 부족해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치의 장래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도층으로 부상한 새로운 세대의 인물들은 수십년간 김일성을 보위하던 갑산 계릴라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테크노크랫의 성향이 강하며, 또 어느 정도 국제적 감각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사회의 성격상 군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될 것이며, 김정일과 그의 정책에 대한 군의 지지 또한 필수적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이 군의 지지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호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지금이 바로 세대교체기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 이유들로 인해, 새로운 세대는 경제 개혁과 기술적 변화라는 시대의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홍영: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건설 등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에 결국 합의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북한내부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누군가 최고결정권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김정일이나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첫째로, 핵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김정일 개인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둘째 질문은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통일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질적인 외교정책은 분단국이라는 현상대를 유지하려는 2개의 한국정책으로 변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은 북한의 경제개혁 시도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재미 한국인 학자들은 경제개방과 경제개혁을 구분하며, 북한은 경제개방을 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경제개혁에 대한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최우선적인 외교적
목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하나의
독립국가로서의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서,
이에 주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통일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스칼라피노: 저는 북한의 모든 주요 정책에 김정일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따라서 콜라뽀푸르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그가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문제에 얼마나 깊이 간여했는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최종 결정 과정에 분명히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1개 혹은 2개의 한국정책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현재 최우선적인 외교적 목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하나의 독립국가로서의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서, 이에 주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통일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현단계에서의 통일은 신화이며, 꿈에 불과합니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남한 접근으로 인해 과거의 안전장치와 안정적 안보 구조를 잃게 된 북한으로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이 ‘북방정책’을 통해 이북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두 주요 협력국, 즉 전략적·경제적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경제의 동력을 제공하는 일본에게 다가가 그들의 외교적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남한과의 협상이나 그 밖에 다른 지역적, 국제적 기구에서의 참여 과정에 있어서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이것이 통일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경제개방과 개혁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개방 정책은 개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어떤 형태든지의 계약 체계와 법적 구조를 갖추으로써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전에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스탈린식 경제체제하에서는 경제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 북한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변화의 시기, 그리고 개혁의 시기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단 개방을 결정한 이상 큰 방향은 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영: 북한이 남한과 일본에게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북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북한의 현재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쌀 지원 문제를 일본과 먼저 논의했으며, 이에 일본은 북한을 돕겠다고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향후 협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스칼라피노: 북한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직 쌀 지원 요청이라는 한가지 사실만 존재했다면, 이것을 필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문제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접근 태도를 암시하는 사건들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기업의 북한내 투자에 대해 호의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특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을 국제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적인 구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2~3년간, 즉 김일성의 사망 이전부터, 북한이 자신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여러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4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대외적으로 제시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그리고 무역제일주의 원칙들은 그 한가지 사례입

“지난 2~3년간, 즉 김일성의 사망 이전부터, 북한이 자신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여러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니다. 식량사정이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켰을지는 모르나, 이미 북한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변화, 즉 개방과 개혁에 발을 들여놓았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이러한 변화의 정치적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매우 잠정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흥영: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도전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일 수교와 그 협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떠한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스칼라피노: 북한의 전략은 매우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 초점은 미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안보전략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향후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현재까지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 졌음), 다음으로 두번째로 중요한 행위자인 일본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북일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 전시 발생한 양국간 불미스러웠던 문제, 배상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특히 북미관계가 성숙되게 되면, 북일관계의 진전도 뒤따르게 되리라는 데에 저는 추호의 의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단계에는 일본의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유망한 투자기회들이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등 각지에 널려 있습니다. 북한으로서 일본을 포함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공식적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앞에서 말한 북한의 정통성 추구 과정이 진일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일본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 또한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로 바로 국경 너머에 자신과는 매우 다른 정치체제가 생기는 것 또한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흥영: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를 끝내고자 합니다만, 이 질문이 어찌면 약간 억지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대만 문제로 인해 불편해 진 반면, 대만과 북한은 경제적, 인적 교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 진 정도에 비례하여 남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새로 등장하는 추세가 이 지역체제의 향후 변화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스칼라피노: 현재 중국이 아시아 인접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예를 든다면 리펑 총리의 러시아 방문, 장쩌민의 해외 방문, 그리고 많은 아시아 지도자들에 대한 북경으로의 초청 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미국과의 불화로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 외부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면, 미국과의 협상 능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중국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물론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 또한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로 바로 국경 너머에 자신과는 매우 다른 정치체제가 생기는 것 또한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연변 자치구 지역에 많은 한국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 그리고 문화적 관계 발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항의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물론 사적으로 대화할 때면, 중국인들은 북한의 정치, 혹은 경제 체제에 대해 그리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흥영: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스칼라피노: 다룰 만한 것은 전부 다룬 것 같습니다. **完**